

현대해상 이·조시대... 세대교체로 '내실·성장' 두토끼

(이성재·조용일)

현대해상, 차기 CEO 내정

작년 매출 증가... 영업익 25% ↓
이익 기반 내실있는 성장 과제
디지털 변화에 적극 대응 계획



현대해상 광화문 사옥.

/현대해상

현대해상을 이끌어갈 수장이 7년 만에 바뀌었다. 현대해상은 조용일 총괄 사장과 이성재 총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세대교체를 꾀했다. 보험업계 장수 최고경영자(CEO)로 꼽히는 이철영 현대해상 부회장은 용퇴했다. 이로써 현대해상은 다시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앞서 지난 2013년부터 각자대표 체제였던 현대해상은 지난해 7월 박찬중 전 사장이 사임하면서 이철영 부회장 단독 경영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에 따른 실적 악화, 성장세·수익성 악화 등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졌다. 조 사장과 이 부사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익 기반의 내실 있는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앞으로 조 사장은 총괄 사장으로 영업전략 수립과 채널별 전략 기획 등을

전담하고, 이 부사장은 경영기획을 담당하면서 디지털 신기술 도입과 해외 신사업 시장 개척 등 중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대교체 나선 현대해상... 다시 '투톱체제'로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2일 차기 CEO에 조용일 사장과 이성재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현대해상은 보험업계 업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실적이 크게

소하자 7년 만에 세대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2013년부터 현대해상을 이끌었던 이 부회장은 정기 주주총회가지만 임기를 유지기로 했다.

조 사장과 이 부사장은 내실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부진한 실적을 끌어올리고 높은 손해율도 낮춰야 한다. 디지털 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4억원으로 전년(3590억원) 대비 30.2% 감소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3조 417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

지만 영업이익은 3832억원으로 25.5% 감소했다.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손보 업계 2위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난해 현대해상의 시장점유율은 16.8%로 업계 3위 DB손해보험(16.3%)에 비해 0.5%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상위 손보사에 비해 손해율도 높다. 지난해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은 110%로 전년(104.8%)보다 5.2% 포인트 상승했다. 합산비율이란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값으로 100%를 초과하면 손해액 및 사업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크다는 의미다.

◆ 내실 있는 성장, 디지털 역량 강화

조 사장과 이 부사장은 내실 있는 성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해상은 올해 경영방침도 국내 보험산업 성장세 둔화, 수익성 악화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이익 기반의 내실 있는 성장을 추진하고 영업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정했다.

우선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이 지난달 말 공개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매출액(원수보험료) 목표를 13조 7725억

원으로 제시했다. 전년도 목표액 13조 3626억원 대비 3.0% 증가한 규모다.

손해율 관리에도 들어간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1분기 손해율은 85.2%였으나 2분기 86.3%, 3분기 87.7%, 4분기 90.2%까지 올랐다.

디지털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전략부서를 본부로 격상하며 디지털 역량 강화 의지를 보였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적 부진은 보험업계 전체의 문제"라며 "현대해상은 젊은 피 수혈을 통해 세대교체를 이룬 만큼 올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사장은 1958년생으로 1984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후 1988년 현대해상으로 옮겼다. 일반보험업무본부 전무, 기업보험부부장 전무 및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 부사장은 1960년생으로 1986년 현대해상에 입사해 경영기획본부장, 해외사업본부장, 현대C&R 대표이사, 기업보험부부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1월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12월부터 총괄 부사장이 됐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DLF 중징계 받은 손태승, 불복소송 나서나

(우리금융지주회장)

우리·하나, 각각 197억·168억 과태료
오늘부터 6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손회장 연임, 주총에서 승인 받아야



(왼쪽부터)우리은행, 하나은행 전경.

/각사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판매은행에 대한 기관제재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결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와 같이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감사결과와 조치안을 의결했다.

먼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두에게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원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영업정지는 바로 다음날인 5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4일까지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과태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

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존 금감원의 원안에서 각각 90억원, 30억원 가량 낮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서 앞서 나온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 결과가 같이 통보될 예정이다.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달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지만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얹히면

서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키로 했다.

이제 관심사는 중징계에 대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대응 여부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은 제한된다. 손 회장은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달 말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재 효력이 통보와 함께 발생한다는 점에서 손 회장이 임기를 이어가려면 행정소송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

신한銀,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 신속심사

'하이패스 심사 프로세스' 도입
신규 자금지원 가능업체 안내
여신 심사 의사결정 체계 간소화

신한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해 '하이패스(Hi-Pass) 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여신 연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여신의 연기 상담을 신속히 완료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여신 의사결정 시스템인 기업CSS를 통해 2개월 후 여신 만기 건까지 선제적으로 연기 심사를 완료하고, 본점의 부장급 심사역이 직접 고객과 상담할 계획이다.

또 선제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의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한 업체 약 3200개를 해당 지역 영업점에 안내해 고객의 여신 신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담보가 없어도 지원 가능한 업

체 약 600개에 대한 대출 가능한도 2000억원의 경우 필요시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의 여신 심사 의사결정 체계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본점 심사역이 판단하던 일부 대출을 영업점장이 판단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본점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는 대출은 최소 2명 영업 일 이내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하이패스 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신속한 여신 연장 및 감면 위험 최소화를 위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채널(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연장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화 통화로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기존의 여신 지원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클레온' 국내 첫 금융 클라우드 플랫폼

*b KB 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지난 3일 금융분야 클라우드 활용 및 상호 협업을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EA(Enterprise Agreement)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AWS 본사와 국내 금융그룹이 직접

계약하는 것은 처음이며, 지난해부터 양사가 함께 국내 법령을 준수하는 금융 클라우드 구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다.

현재 KB금융의 금융 클라우드 플랫폼 클레온(CLAYON)은 NHN의 토스트(TOAST) 클라우드를 활용해 KB국민은행의 통신서비스 리브엠(Liiv M)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AWS와의 계

약을 통해 클레온은 동시에 2개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멀티클라우드)하는 국내 첫번째 금융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특히 AWS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대표적인 클라우드 사업자이며, 사물인터넷(IoT)과 머신러닝, 블록체인 등에 특화돼 있다. AWS의 총 175개 이상의 신기술 서비스를 신속하게 클레온에 도입할 수 있게 돼 서비스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안상미 기자

NH농협銀 대구·경북 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NH농협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4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이 소유·임대 중인 부동산에 대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 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그 외 지역은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 중에 있다. 대구·경북지역 내 자동화기기(CD/ATM)이용수수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전액 면제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